

<한미 FTA협상 문서 설명 자료>

일방적 동의 조항 막으려고 세 차례나 'Korea' 넣는 수정안 제시했으나 실패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폐기한 TPP에도 없는 조항,
미국 일방주의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에 이용될 것,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한미 FTA 문서의 내용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문서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개되는 문서로서, 2007년 6월 한국이 미국과 진행한 한미 FTA 추가 협상 문서임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 경과>

- 2015년 3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산업부에 한미 FTA 서문 조항 협상 문서 정보공개청구
- 2015년 3월 31일, 산업부, 공개시 국익에 중대한 침해 우려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
- 2015년 6월 민변,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 2016년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하라고 판결(민변 승소)
- 2016년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문서 공개하라고 판결(민변 승소)
-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 제3부, 문서 공개하라고 판결(민변 승소)
- 2017년 1월 26일 산업부, 685일 만에 최초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참여 정부의 한미 FTA 추가 협상 경위>

참여정부는 2007. 4. 2.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 5. 25. 한미 FTA 협정문을 최종 작성하여 공개하였음에도 다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 6월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였고 6월 30일에 서명함

<공개 한미 FTA 협상 문서의 내용>

공개되는 한미 FTA 협상 문서는 한미 FTA 서문 조항 협상 문서로 총 5장임

미국이 6월 16일에,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 동의한다는 일방적 동의 조항을 제안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 22일, 25일 그리고 서명을 사흘 앞둔 27일 모두 세 차례 수정 제안한 내용임 한국의 시도는 실패함

문서 1. 미국의 6월 16일자 제시 문안 번역: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1))

문서 2. 한국의 6월 22일자 수정 제안 문안 번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1) "recognizing that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international law standards, foreign investors shall not be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2))

문서 3. 미국의 6월 23일자 수정 문안 번역: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3))

문서 4. 한국의 6월 25일자 재수정문안 번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4))

문서 5. 한국의 6월 27일자 재수정문안 번역: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리고 헌법 6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3조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이 외국인 투자자 및

2) recognizing that where, a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international law standards, foreign investors are accorded as shall not be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a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3)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4)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equal to those of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한국인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함을 인식하면서5))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을 조항에 포함하려는 한국의 시도는 실패하여 결국 30일에 미국의 수정제안문대로 서명하였음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한글본 공식 번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2. 불평등 조항

추가협상을 통해 수정된 한미FTA 서문의 해당 조항은 미국은 이미 미국의

5)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nd recogniz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including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provide foreign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protection equal to that provided to domestic investors and their investments.

한국 기업에게 한미 FTA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므로, 한미 FTA를 했다고 하여 미국의 한국 기업에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이 동의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 조항은 반대로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불평등한 조항임

한국은 이 불평등 조항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조항에 'Korea'를 넣어 보려고 세 차례나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이 조항은 종래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유례가 없는 조항으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삼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도 없는 것임

미국이 한미 FTA를 시작으로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 처음으로 추가한 조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방주의 조항임

이는 미국 일방주의 조항으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임

3. 참여 정부의 왜곡 홍보와 언론 문제제기에 대한 왜곡

당시 참여 정부는 불평등 조항이 추가된 협상 실패를 묻어 버리면서,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 허브를

추구하는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왜곡하였음

그리고 2007년 7월 4일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한겨레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도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왜곡함